

국별 리포트

스리랑카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7. 12. 14

| | |
|--------------------|----|
| I. 일반개황 | 1 |
| II. 경제동향 | 2 |
| III. 정치·사회동향 | 10 |
| IV. 국제신인도 | 12 |
| V. 종합 의견 | 14 |

I. 일반개황

| | | | |
|------|--|---------|-------------------------------|
| 국명 | 스리랑카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 수도 | 콜롬보(Colombo) |
| 면적 | 66천 km ² (한반도의 2/7) | GDP | 854억 달러 (2017 ^e) |
| 인구 | 21.4백만 명 (2017 ^e) | 1인당 GDP | 3,990 달러 (2017 ^e) |
| 정치체제 | 대통령중심제 | 통화단위 | Sri Lanka Rupee(SLR) |
| 대외정책 | 독자적 실리노선 | 환율(달러당) | 153.4 (2017 ^e) |



- 스리랑카는 인도 남동부 인도양에 위치한 도서국으로 면적은 한반도의 7분의 2수준임. 인구는 2017년 기준으로 약 21.4백만 명이며, 싱할리족(75%)과 타밀족(11%)으로 구성되어 있음.
-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실론'이라는 국호를 사용했으나 1972년 스리랑카로 변경함. 대통령 중심제 국가로 2015년 시리세나 대통령이 대선에 승리한 이후, 정치개혁 실시, 연합정부 구성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국을 운영 중에 있음.
- 청정해안, 열대성 기후 등을 바탕으로 관광산업이 발달하였으며, 인도양의 관문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해상물류 허브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e | 2018 ^f |
|------------|------|------|------|------|-------------------|-------------------|
| 경제성장률 | 3.4 | 5.0 | 4.8 | 4.4 | 4.7 | 4.8 |
| 소비자물가상승률 | 6.9 | 2.8 | 2.2 | 4.0 | 6.0 | 5.0 |
| 재정수지 / GDP | -5.2 | -6.2 | -7.0 | -5.4 | -5.2 | -4.7 |

자료: IMF

□ 민간소비 성장세 완화 등으로 2017년 4.7% 경제성장 전망

○ 스리랑카는 2009년 내전 종식 이후 국가 재건을 위한 인프라 투자와 관광업 호조로 9%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2013년 가뭄·홍수와 미국과 EU등 수출시장의 경기침체로 성장세가 둔화된 이래 4%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경제성장률(%) : 8.0('10) → 9.1('12) → 3.4('13) → 4.8('15)

○ 2016년 경제성장률은 4.4%, 2017년 예상 경제성장률은 4.7%로 인프라 투자 증가로 총투자는 증가하나 그 외 민간소비, 정부지출, 순수출은 둔화하는 모습을 보임.

- 민간소비는 2016~17년 가뭄과 홍수에 따른 생필품 가격 인상과 2017년 부가가치세 인상 등으로 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성장세가 둔화됨.

* 소비자물가상승률(%) : 2.2('15) → 4.0('16) → 6.0('17^e)

- 정부지출은 IMF와 합의*한 재정적자 개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5년 GDP의 20.9%에서 2016년 19.7%로 줄어들었고, 2017년에도 19.7%로 예상됨.

* IMF는 '16.6월 15억 달러 규모의 확대금융(Extended Fund Facility, EFF) 제공을 승인하면서 재정적자, 세수, 공공부채, 외환보유고의 중장기 목표와 개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스리랑카 정부의 이행경과를 정기점검 및 평가하고 있음.

- 순수출은 2016년은 부진한 세계경기 회복세와 의류, 차(茶) 등 주요 수출품의 경쟁력 약화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9.6%)을 하였으나, 2017년에는 의류와 차 수출이 일부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 2018년 이후 경제성장률은 5% 전후로 예상되며, 세계경기회복과 중국 등과의 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수출 증대, 민간 투자 확대가 성장률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보임.

* IMF 경제성장률 전망치(%) : 4.8('18') → 5.0('20') → 5.2('22')

- 그러나 숙련된 인력 부족, 열악한 인프라, 여성의 낮은 노동참여율(36%)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가뭄·홍수 피해로 인한 예상치 못한 경제적 손실에도 대비가 필요함.

□ IMF 경제개혁 정책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폭 개선

- 지난 20년간 재정적자/GDP 비중이 평균 -8%에 달해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나 2015년 시리세나 정권 출범 이후 무분별한 차입을 줄이고 2016년부터 IMF의 개혁정책을 이행하여 재정적자 비중을 -5%대로 개선함.

- 2016년에는 재정적자 비중 목표치인 -5.4%를 달성하였으나, 2017년과 2018년 목표치(각 -4.8%, -4.0%)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IMF 재정수지/GDP 전망치(%) : -5.2('17'), -4.7('18')

- 재정수입 확대를 위해 2016년 말 담배세와 부가가치세를 인상(각 72%→86%, 11%→15%)하고 2017년에는 세제개편안 시행을 통해 자본취득세, 금융거래세 등을 신설하고 이자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인상함.

- 2020년까지 세수/GDP 비중 목표 15%를 달성해야 하나, 2017년 세수 확대로 동 목표를 조기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 공공부채가 재정적자의 가장 큰 원인으로 중국 차관의 출자전환과 차입구조 개선으로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있음.

- 공공부채/GDP 비중이 79.3%(2016년)로 매우 높고 IMF 목표에 따라 2020년까지 68% 수준으로 개선해야 함.

- 2017. 7월 함반토타 항구 건설에 투입된 중국차관(12.7억 달러) 중 90%인 11.2억 달러를 출자하여 부채를 크게 줄이고, 대신 항구 지분 70%를 중국 기업 앞 매각함.

- 또한, 2015년 시리세나 정권 출범 이후 고이자율의 중국 차관* 대신 ADB, 한국, 일본 등에서 낮은 이자율의 차관을 도입하여 이자비용을 줄임.

* 일례로 함반토타 항구건설사업 앞 중국차관의 이자율은 6.3%로 세계은행(WB)이나 ADB 차관의 이율 0.25~3% 대비 훨씬 높은 수준이었음.

2. 국제 경제

<표 2>

주요 국제경제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 구 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e |
|-----------------|--------|--------|--------|--------|-------------------|
| 경 상 수 지 | -2,540 | -1,987 | -1,882 | -1,942 | -2,094 |
| 경 상 수 지 / G D P | -3.4 | -2.5 | -2.4 | -2.4 | -2.5 |
| 상 품 수 지 | -7,608 | -8,287 | -8,388 | -9,090 | -10,125 |
| 수 출 | 10,394 | 11,130 | 10,547 | 10,310 | 11,238 |
| 수 입 | 18,003 | 19,417 | 18,935 | 19,400 | 21,363 |
| 외 환 보 유 액 | 6,611 | 7,316 | 6,543 | 5,189 | 6,000 |
| 총 외 채 잔 액 | 43,000 | 43,000 | 44,800 | 46,000 | 47,400 |
| 총 외 채 잔액 / GDP | 57.7 | 54.2 | 56.3 | 57.1 | 56.7 |
| D . S . R . | 11.7 | 13.0 | 13.8 | 11.5 | 12.3 |

자료: IMF, EIU, OECD.

가. 대외거래

□ 상품수입 확대, 해외근로자 송금 감소로 경상수지 적자세 유지

- 석유 등 중간재 수입의 확대로 상품수지 적자폭이 확대 추세이며, 관광업의 성장에 힘입은 서비스수지 흑자 등에도 불과하고 상품수지 적자폭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하여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지난 5년간(2013~17년) 20억 달러 내외의 경상수지 적자, 경상수지/GDP 비중 -2% 중반대를 기록하였으며 IMF에 따르면 향후 5년간(2018~2022년)에도 유사한 추이로 경상수지 적자를 이어갈 것으로 보임.
- 외환보유액의 주요 원천이자 GDP의 10%를 차지하는 해외근로자 송금액 또한 대다수 근로자가 근무하는 중동지역에서의 근로자 수입 감소와 여성 근로자의 해외근로 제한에 따른 인력 감소로 송금 규모가 줄어듦.

나. 외채상환능력

□ 외채규모가 과중하고 환율상승으로 상환부담 증가

- 총외채잔액/GDP 비중은 2016년 57.1%로 경제규모 대비 외채잔액이 높은 편이며, 공공부채/GDP 비중도 2016년 79.3%로 IMF의 경제개혁 목표에 따라 2020년까지 GDP의 68% 수준으로 축소해야 함.
- 외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은 외채비용증가 및 상업 금융기관의 해외차입증가 등으로 10% 초반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자 비용이 2016년 정부수입의 38%를 차지할 정도로 과중한 상황임.
- 공공부채 중 74.3%가 달러표시 채권으로 최근 루피화 약세에 따른 미달러 대비 환율의 상승세로 외채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스리랑카 루피화/미달러 환율은 미국의 2차례 기준금리 인상('16.12월, '17.3월)과 발전용 석유 수입 급증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 * 루피화(Rs)/미달러(US\$) : 149.7('16.12) → 153.4('17.6) → 153.5('17.10)
 - 2018년 연평균환율 예상치는 159.4로 환율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채 만기도래시 루피화 환산 외채상환액이 늘어나 상환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

□ '부채의 덩어리'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세계은행은 11월에 International Debt Statistics 2018을 발표하면서 남아시아의 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었고, 이 중 스리랑카의 경우 총 외채규모, 총외채/총수출 비중 급증으로 부채상환 능력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특히 타 남아시아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외환보유액을 문제로 지적함.
 - 총외채규모는 2011년 258억 달러에서 2016년 460억 달러로 5년 만에 80% 가량 증가하였고, 총외채/총수출 비중 또한 262%(2016년)로 부채상환부담이 매우 큰 수준임.
 - 단기외채/총외채 비중은 낮은 수준(2016년 19.7%)이나 단기외채/외환보유액 비중은 매우 높아(2016년 174%) 유동성 대비에 매우 취약함.

3.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만성적인 외환보유액 부족으로 대외충격에 취약

- 주요 외화소득원인 의류·차 수출, 해외근로자 송금이 세계경기에 민감하고 외채상환을 위한 이자비용이 과중하여 만성적인 외화부족 문제를 겪고 있음.
- 2017년 말 예상 외환보유고는 60억 달러(2.6개월치 수입액)로 2016년말 51.9억 달러(2.4개월치 수입액) 대비 15.6%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임.
- * IMF와의 합의에 따라 2020년까지 외환보유고를 5개월 수입액 수준으로 확대 필요

□ 취약한 국내 제조기반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지속

- 2009년 30년에 걸친 내전 종식 이후 국가경제개발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 하여 높은 경제성장세를 보였으나, 국내 제조기반이 취약하여 경제발전에 따른 수요증가가 오히려 자본재와 소비재 수입수요 증가로 연결되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음.

□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경제발전에 걸림돌

- 몬순*(우기)시기가 예상을 벗어나면서 수시로 가뭄과 홍수 피해를 입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지출과 농업 생산 감소가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 적도에서 불어오는 남서계절풍(5~9월), 벵골만에서 불어오는 북동 계절풍(10~1월)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 많은 비를 가져오며, 이에 맞춰 벼농사를 함.
- 2016년 초부터 2017년 초까지는 40년래 최악의 가뭄으로, 5월에는 14년래 최악의 수해로 주택, 도로, 농축수산업 등 사회 전반에 대규모 피해를 입었으며, 벼농사 피해보상과 화력발전용 유류수입 등으로 정부예산지출이 늘어남.
- UN에 따르면 25개 州 중 15개 州가 수해 피해를 입었고 이재민도 60만 명에 달하며 2017년 쌀 생산량이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스리랑카 기상청은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엘니뇨(El Nino)로 인한 가뭄을 예상하고 있어 2018년에도 농업생산량 감소가 예상됨.

나. 성장 잠재력

□ 서남아 물류 허브로 발전 가능

-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고 남쪽으로는 더 이상 육지가 없어 예전부터 동서양 항해의 중간기착지이자 동서교역의 관문이었음.
- 특히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남부의 함반토타항 운영권과 지분을 확보*하고 콜롬보항 개발사업**도 추진하는 등 인도양의 관문인 스리랑카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함반토타항 개발사업

- 중국국영항만기업이 스리랑카항만공사로부터 99년간 함반토타항 관리·운영권을 확보하고 11억 2천만 달러(1조 2,600억 원)을 투자하여 대형 선박 접안이 가능한 서남아시아 최대 항구로 개발하는 사업.

** 콜롬보항 개발사업

- 콜롬보항 인근에 14억 달러(1조 5,000억 원)를 투자하여 계획된 면적 33만평 중 20%는 중국이 완전 소유하고 나머지는 99년간 임차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항구도시를 건설하는 사업.

- 이러한 중국의 대대적인 투자는 동남아시아와 인도양, 아프리카의 에너지와 화물 수송로에 위치한 주요 항구의 운영권을 확보하여 에너지 안보를 도모키 위한 것으로 항구들을 연결하면 진주목걸이 모양이 되는 것을 일컬어 ‘진주 목걸이 전략’이라고 불림.

- 서남아시아에서는 파키스탄 과다르, 스리랑카 함반토타와 콜롬보, 방글라데시 치타공이 해당되며, 해당국 정부는 이를 자국 물류인프라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코자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함.

<그림 1> 중국의 ‘진주목걸이 전략’ 주요 거점 항구



자료: 연합뉴스, “中, 스리랑카 함반토타 항 운영권 확보”, 2017.7.30자

□ 세계적인 관광 대국으로의 성장 잠재력 보유

- 섬나라의 특성상 4면이 바다인 관광자원, 많은 불교유적지, 수려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고 관광업의 성장세도 괄목할 만한 수준임.
 - 2013년 론리 플래닛(Lonely Planet)이 뽑은 관광지 1위로 선정되는 등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고 특히 세계 최대 차(茶) 생산국 중 하나로 고원 지대에 위치한 차밭이 중요 관광자원과 외화수입원으로 각광받고 있음.
 - 관광객 수가 지난 5년간 연평균 22%이상 증가하였으며, 2016년 스리랑카 방문 외국인은 200여만 명에 달함.
- 정부는 관광업의 성장세와 잠재력을 인식하고 “관광전략계획 2017-2020”(Tourism Strategic Plan 2017-2020)을 수립하여 추진 중임.
 - 관광업이 2016년 GDP의 14.5%를 차지하고 고용창출, 국내외 투자유치, 외화수입원 확보, 외국인투자유치, 자연보존을 위한 예산확보 등 부가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정부는 2020년까지 관광순수입을 현재의 35억 달러(2016년)에서 70억 달러까지 높이고 관광객 연간 45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함.
- 하얏트, 웨라톤, 샹그리-라 등 세계적인 호텔 체인에서도 수도 콜롬보의 시설을 증축하고 타 지역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다. 정책성과

□ 국가개발계획(‘강력한 스리랑카(Balagathu Lanka)’) 수립

- 2017. 1월 국가개발계획을 발표하고 수출확대 및 대규모 외국인투자유치를 목표로 인프라 및 지역균형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천명함.
- 국토 균형개발을 위해 남서부 경제회랑, 북동부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을 구성하고, 도로, 발전소, 항만, 공항 등 인프라 건설과 산업단지 개발 등 지역별 맞춤 개발계획을 수립함.
- 또한 관광업과 농업 등 주요산업을 육성하고 투자활성화 정책을 통해 2020년 내에 세계은행 사업환경지표(Doing Business Index) 7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함.

- 세계은행 Doing Business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스리랑카의 사업환경은 조사대상 190개국 중 111위로, 서남아시아에서는 부탄(75위), 인도(100위), 네팔(105위) 보다도 낮음*(한국은 4위).

* 부문별로는 소액투자자보호(43위)의 순위가 높고 건축인허가(76위), 창업(77위), 대외무역(86위) 등은 비교적 양호한 반면, 신용획득(122위), 재산등록(157위), 조세 납부(158위), 계약 실행(165위)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함.

□ EU의 일반관세특혜(GSP+) 재부여로 무관세 수출 가능

- EU는 개발도상국이 무역확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개발과 선정(善政, good governance)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일반관세특혜(GSP+ : General System of Preference Plus)를 대 EU 수출품에 제공하고 있음.

- 스리랑카는 2005. 7월부터 EU의 GSP+ 지위를 활용하여 7,200가지 품목을 EU시장에 무관세로 수출했으나, 2010. 8월 EU는 내전시 발생한 인권침해가 UN결의안 등 국제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GSP+ 부여를 취소함.

- 스리랑카 정부는 2015. 4월 19차 개헌 등을 통해 국제인권협약 이행 노력을 약속하고 2016. 7월 EU 앞 재부여를 신청하였고, 2017. 5월 국제인권협약 이행 노력을 인정받아 EU 의회 결의를 통해 재부여가 발효됨.

- 다만 EU는 GSP+ 재부여 이후에도 스리랑카의 인권 개선노력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이행노력이 부족할 경우 GSP+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힘.

- EU는 스리랑카의 최대 수출시장(2016년 수출비중 30.1%)으로 스리랑카의 대 EU 수출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스리랑카 전체 수출의 45%를 차지하는 섬유·의류 수출이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임.

□ 상위중소득국가 진입을 목표로 2018년 예산안 수립

- 정부는 11월 발표한 2018년 예산안에서 경제성장률 증가, 세수증대, 재정 감축으로 2020년까지 상위중소득국가 진입을 목표로 함.

- 스리랑카의 1인당 GNI는 3,780달러(2016년)로 세계은행 기준 저중소득국이며 상위중소득국 현재 기준은 3,956~12,235 달러임.

Ⅲ. 정치 · 사회 동향

1. 정치 안정

□ 정치안정을 기반으로 경제 각료 재정비 및 대외경제정책 정국 추진

- 2015년 초 시리세나 대통령 당선 이후, 정치개혁을 단행하며 안정적으로 정국을 운영 중으로 최근 개각을 단행하여 국영기업 개혁 등에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신임 재무부 장관이 된 사마라위라 장관은 통신부 장관 재임 당시 국영통신사 민영화를 성공시킨 경험이 있어 IMF 개혁 과제 중 가장 지지 부진한 것으로 평가되는 국영기업 개혁과 민영화*에서 앞장설 것으로 보임.
 - * 함반토타 항구 지분 매각을 제외하고는 가시적 성과가 없으며 스리랑카 항공, 마딸라 국제공항 등 국영기업이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임.
- 또한 인도와 경제기술협력협정(ETCA) 체결 추진, 중국 및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논의, 미국 및 터키와 양자무역협정 체결 논의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추진 중임.

□ 2018년 조기총선에서 집권당 승리시 정치 안정 유지 가능

- 2015년 총선 당시 시리세나 대통령 소속당인 UPFA가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여 UNP와 2년간의 연정으로 거국 내각을 구성하여 권력을 유지해왔으나 연정기간 동안 지지기반이 다른 두 당의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시리세나 대통령이 2018년 조기총선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됨.
- 시리세나 집권당은 내년 총선시 과반수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연정 구성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사회 안정 (소요/사태)

□ 타 서남아 국가에 비해 양호한 인간개발지수와 국가경쟁력 지수

- 스리랑카는 1948년 독립 이후 필리핀, 버마(현 미얀마)와 함께 아시아의 선두 그룹을 형성하기도 했으며,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지수(2016년)에서도 188개 대상국 중 73위*를 차지하여 다른 서남아 국가(인도 131위, 방글라데시 139위, 파키스탄 148위)에 비해 양호한 수준임.
- * 순위 인접국 : 터키 71위, 72위 베네수엘라(한국은 18위)

□ 빈부격차 개선은 요원하여 사회불안 요소 상존

- 최근 스리랑카 통계청이 발표한 가구 소득소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6년 지니계수는 0.45로 3년 전의 0.48 대비 소폭 개선되었으나, 도시와 농촌지역의 소득격차는 여전하여 저소득층이 집중된 북동쪽 지역의 사회불만이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음.

3. 국제관계

□ 중국, 인도의 삼각관계에서 실리노선 추구

- 인도양의 전략적 요충지인 스리랑카와 가까워지기 위해 중국과 인도는 경제외교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협력에 우선순위를 둔 전 라자팍사 대통령과는 달리 현 시리세나 대통령은 인도와의 관계 회복과 중립적 위치에서 경제적 실리 획득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전 라자팍사 대통령은 재임(2005~2015년) 기간 동안 함반토타 항 개발사업 등 중국과 협력관계를 맺고 중국의 40억 달러 투자를 약속받았으나, 중국으로부터 47억 달러에 달하는 차관을 도입하여 정부재정에 악영향을 가져온 것으로 비판을 받음.
 - 중국 차관의 이율은 평균 6% 이상으로 이자비용만으로도 정부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에 상환해야 할 부채는 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인도와는 2000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경제기술협력협정(ETCA)*를 체결할 예정('17년 말까지 타결 목표)이며, 2015년 시리세나 대통령 취임 이후 양국 정상간 국민방문 등 양국 관계가 호전됨.

* Economic & Technology Cooperation Agreement : 협정 국가 간 제품 수출입 뿐만 아니라 서비스 교류, 기술 연구개발, 인력교류까지 포괄하는 경제적 동반자 협정

□ 미국, 유럽과도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

- 미국은 스리랑카 독립 이후 원조, 재난구조, 대미무역관세 특혜부여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지원해왔고, 유럽 또한 GSP+ 지위를 부여하여 관세혜택을 제공해 왔음. 미국과 유럽 모두 스리랑카 인권문제 개선에 적극 개입하여 스리랑카 정부의 개선노력에 따라 경제 혜택 수위를 조절함.

- 1983~2009년 26년 간의 내전 중 7만명의 희생자와 30만 명의 국제피난민이 발생했고, 인권유린·침해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여 미국, 유럽, 유엔 등 국제사회는 관련 사건들을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요구함.
- o 스리랑카 정부도 이에 부응하여 실종자위원회 설립(2013년), 실종자사무소 설치(2016년)를 추진하고 2017. 3월 34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스리랑카 인권결의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일 약속함.
- 화해사무국(Reconciliation Secretariat)과 실종자사무소 설치법 제정, 군 점령 민간 소유지 반환 등이 해당됨.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소액 연체경험은 있으나 외채상환태도는 비교적 정상적

- o '17년 6월말 기준 OECD회원국의 ECA 승인금액 20.3억 달러(단기 3.9억 달러, 중장기 16.4억 달러) 중 중장기 승인금액의 0.01%에 해당하는 소액(20만 달러) 연체경험은 있으나 미회수금액은 없어 외채상환태도는 비교적 정상적임.

2. 국제시장평가

□ OECD, 국제신용평가 3사 모두 기존 등급 유지

- o OECD는 안정적 경제성장세, 세계개혁 등 긍정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대외 유동적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한 점을 들어 기존 6등급을 유지함.
- o Moody's, Fitch 등 국제신용평가사 또한 신용등급을 종전과 동일한 투자 부적격등급(B+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IMF 확대금융 지원에 따른 경제개혁 이행경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림.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 평가기관 | 최근 평가 등급 | 종전 평가 등급 |
|---------|---------------|---------------|
| OECD | 6등급 (2017. 6) | 6등급 (2016. 6) |
| Moody's | B1 (2017. 6) | B1 (2016. 1) |
| Fitch | B+ (2017. 2) | B+ (2016. 2) |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 수립: 1977. 11. 14 수교 (북한과는 1970. 6. 25 수교)

○ 수교 40주년을 맞아 유상원조 확대 등 양국간 교류 활성화 기대

- 2017년 한-스 수교 40주년을 맞아 스리랑카 시리세나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11.28~30)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확대, 스리랑카 근로자의 한국 취업 확대, 우리기업의 스리랑카 건설프로젝트 참여 확대 등 협력방안을 논의함.

* 스리랑카는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에 이은 EDCF 제5위 수원국

□ 주요 협정: 항공협정('78), 문화협력협정('78), 투자보장협정('80), 무역협정('84), 이중과세방지협약('84), 과학기술협력협정('94), 무상원조협정('09)

□ 해외직접투자현황: 2017년 9월말 누적 기준 180백만 달러(177건)

□ 교역규모

- 우리나라의 79위 수출시장으로 수출액은 2009년 내전 종료 전까지 하락세를 보이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3억 달러 수준을 유지함.
- 주요 수출품목인 편직물, 고무는 우리 투자기업의 원·부자재에 해당하며, 경제개발에 따른 건설 붐으로 철강판과 기계류의 수출비중이 늘고 있음.
- 주요 수입품목인 의류는 현지에서 우리 투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임.

<표 4> 한 · 스리랑카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 2014 | 2015 | 2016 | 2017.9 | 주요 품목 |
|------|------|------|------|--------|-----------------------|
| 수 출 | 314 | 278 | 276 | 215 | 편직물, 철강판, 합성고무 |
| 수 입 | 94 | 84 | 89 | 66 | 의류, 식물성 재료, 기타 비금속 광물 |
| 교역규모 | 408 | 362 | 364 | 281 | - |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 의견

- 2017년은 민간소비 및 정부지출의 둔화세와 가뭄과 홍수피해로 인한 농업활동 위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경제성장률이 2016년 대비 소폭 상승한 4.7%를 기록할 전망이다.
- 2017년 재정수지/GDP 비중은 IMF 경제개혁 조치 이행으로 -5.2% 수준으로 소폭 개선되고, 경상수지/GDP 비중은 상품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관광업 호조로 서비스 수지가 개선되면서 -2.5% 수준을 유지함.
- 시리세나 대통령이 2015년 초 취임한 이후 정치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6년 IMF 확대금융 지원에 따른 경제개혁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
- 외화표시 채권 비중이 높고 외환보유액 수준이 낮아 대외변동성에 취약하고 외채상환능력이 낮음.
- 2018년 이후 경제성장률은 5% 전후로 예상되며, 세계경기회복과 중국 등과의 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수출 증대, 민간 투자 확대가 성장률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보임.

조사역: 김은경 (☎02-6255-5725)
E-mail: lenakim@koreaexim.go.kr